

봄철 산나물이 가득 ... 홍천 산나물 축제

강원도 홍천군은 전국의 시·군 가운데 면적이 가장 크고 85%가 산지로 둘러싸여 있다. 동쪽으로 갈수록 해발고도가 높아져서 다양한 산나물이 자생하는 산나물 재배지로서 최적의 조건이다. 홍천 산나물축제는 올해 5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열린다. 강원도 전 지역의 청정 산나물을 만날 수 있는 축제로 강원도 내 임업인이 직접 생산한 다양한 산나물을 저렴하게 판매한다. 명이, 두릅, 눈개승마, 곰취 등 해발 600m 이상 고지대에서 자생하는 봄철 산나물을 만날 수 있다. 또 색다른 공연과 체험, 산나물을 활용한 다양한 먹거리도 준비되어 있다.

축제 기간을 놓쳤다면 인근 전통시장을 둘러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. 홍천 중앙시장과 전통시장이 맞닿아 있는데, 매일 끝자리 1일과 6일에 열리는 전통 5일장은 옛 전통시장의 매력과 함께 제철 산나물을 만날 수 있다. 시장 한 켠에 약초시장길이 따로 조성되어 있어



홍천의 특산품인 인삼부터 당귀, 더덕, 천궁, 오가피 등 다양한 약초를 구입할 수 있다.

● 주소 :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태학리 271 홍천종합운동장 주차장

서해의 숨은 보석 키조개를 만나다 ... 보령 오천항 키조개 축제



충남 보령의 오천항은 전국 키조개 생산량의 60~70%를 차지할 만큼 대표적인 키조개 산지다. 매년 5월이면 이곳 오천항에서 키조

개 축제가 열린다. 키조개는 모양이 곡식을 골라내는 키(箕)와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, 몸을 이롭게 하는 각종 무기질과 비타민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. 아연, 칼슘, 철 등 미네랄 성분이 다른 어패류보다 높아 호르몬 작용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임산부의 산후 조리나 피로 회복, 술에 흡사당한 간장을 보호하는데도 유용한 수산물로 알려져 있다. 오천항 인근 식당에서는 잠수부들이 직접 채취한 100% 자연산 키조개를 활용한 샤브샤브, 꼬치, 구이, 무침, 회, 조개전 등 다양한 요리를 맛볼 수 있다.

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공연과 행사가 열리며, 인근에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볼거리가 많다. 과거 조선시대 충청도 수군절도사영이 있는 충청수영성과 천주교 순교성지 갈매못, 백제시대 정철의 상징인 도미부인 사당 등을 둘러보면 좋다. ▲

● 주소 : 충남 보령시 오천해안로 781-3